

황우석(전 대전지법 총무과 직원1) 1차 구술

1. 구술자: 황우석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6월 29일
5. 구술장소: 대전 중구 대전풀뿌리시민센터 회의실
6. 구술분량: 08분 0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대전지법 재직 당시 노무현 판사의 예비군훈련

구술자 : 그래서 복도에서 만나도 내가 좀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 또 만나게 되었고. 훈련을 그렇게. 그때는 사병 출신들이 판검사해서 이렇게 한, 내가 기억으로는 한 십(10)여 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떤 판사나 그 검사들은 예비군훈련을,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좀 뭔가 수치스럽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거의 훈련장에 와서 버스에서 갈아입는 분도 있고, 또 갈 때도 우리 차를 타고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서 옷 갈아입고 가서 택시 타고 이렇게, 안 그러면 아는 사람 차를 불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노 판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나는 그때 인제 예비군훈련이 지나서, 몇 년 되었고 훈련은 안 하지만 그래도 참석은 해야 되니까. 거기 인제 하사관 출신이라고 그래서 맨날 훈련장에 나가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인제 나는 미리 그 동네에 나가서 우리 몇 명 분 밥을 맞춰서 그 집으로 인제 이렇게 가서 밥 먹고 그러는데.

점심때 되면은 하여튼 딴 분들은 판검사님들 중에 어디 가셨는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 노 판사님은 나하고 같이 앉아서 ‘아이고 이거 참, 이 반찬 맛있다.’ 뭐 이렇게. ‘내일도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꼭 그래서 나하고 같이 밥도 그렇게 드시고. 아주 소탈하게 이렇게. 그리고 인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술을 못 먹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이렇게 좀 취해서 있는 상태라 아주 예비군 가르치는 사병들이 시간 끝나면은 또 출석 부르고 또 어디가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노 판사님은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꼭 뒤에 서있고 ‘번호’

1) 구술자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대전지법 총무과에서 근무했다.

하면은 ‘하나 걸!’ ‘둘 걸!’ 그, 맨 뒤니까.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그렇게, 굵직한 목소리를 이렇게 들리는 거 같고. 하여튼 내가 산을 좋아해서 그 구봉산 자락을 지금 그 봉우리가 아홉 갠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번호 붙이고 뒤에서 ‘둘 걸!’ ‘하나 걸!’ 하던 소리가 지금도 쟁쟁한 거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한 번도 쉬지를 않고 그렇게 끝까지 다른 예비군 들하고 예비군훈련 받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인제 (훈련 마치고) 올 때는 그날은 좀, 무슨 훈련이 좀 힘들은 그런 훈련이, 이렇게 포복도 시키고 막 그래서 오다가 그날 식대비가 좀 남아갖고 다른 예비군들이 자꾸만 두부에다 막걸리 먹고 가자 그래서, (노무현 판사는) 언제든지 내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운전석 뒤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뒤에다 대고 ‘아이, 저놈들 자꾸 막걸리 먹고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안 들어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아이, 좋다고’ 뭐. 그래서 오다가 그 시골 두부 하는 집 마당에서 그렇게 아예 두부를 이렇게 한판을 사갖고, 그냥 거기서 막걸리 시켜서 막걸리도 이렇게 드시고. 두부도 아주 참 고소하다고 그러면서 잘 드시고.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면담자 : 구봉산 말씀하셨는데 구봉산이 그러면 그때는 예비군훈련을 받던 데였나요? 거기가 예비군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구봉산

구술자 : 구봉 아니 구봉산 밑에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산에다 아예 훈련장을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장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 부대가 거기 상주해있어. 그런데 대통령님이 훈련받을 때는 그런 게 없고 부대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군인들이 글로(거기로) 인제 나온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각 중대장들한테 인원을 인수받아갖고 명단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추울 때 그렇게 훈련하면은 아주 그 벌판에 나가면 얼마나, 그 매섭지 바람이. 그래서 일(1)교시가 끝나면은 딱 분들은 그 어디 언덕 뒤에 이렇게 뚝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그걸 인제 현역들도 내가 얘기를 했어. ‘판검사들인데 사병이라 여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명단을 이렇게 갖다 주지. ‘이분들이니까 출석을 부르다가 그분이 없으면은 좀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 자기네도 그거를 이해를 해서 일(1)교시는 하여튼 같이 다 했지. 그래갖고 좀 바람 의지되는데 가서 좀 쉬고 그랬는데, 우리 노 판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아니 인제 너무 쌀쌀한 날은 ‘저기 넘어가 계시

라고, 다 저쪽에 계시니까’ 그러면 ‘에이 뭐 기왕에 나왔는데 그럼니까?’ 하면서, 아마 한 번도 안 그러셔. 계속 거기서 같이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포복하라면 포복하고 총검술하라면 총검술하고.(웃음) 그러니까 나는 인제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그래 좀 미안하지. 딴 분들같이 좀 저쪽에 가게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어. 그래서 더 내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참.

■ 구술자 주요이력

1941. 전남 영광 출생

1959. 영광농업고등학교 졸업

1970. - 1997. 대전지법 총무과 근무

1970년부터 1997년까지 30년 가까이 대전지법 총무과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1977년 9월 대전지법으로 부임한 판사 노무현을 만났다. 공군 하사관 복무 경력으로 대전지법 직원들의 예비군훈련 일정을 챙기기도 했는데 이 때 당시 노무현 판사의 개인적인 면모를 접할 수 있었다. 2011년 노 대통령 2주기 추모웹진 ‘Rohmember’ 에 ‘노무현 대통령의 판사시절 이야기’ 를 기고하기도 했다.